



### 0.01초라도 빨리

18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용평컵 알파인스키대회 대회전 경기에서 국가대표 김우성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상욱 '부활 신호탄' 4언더파 공동 19위

PGA봄호프크라이슬러클래식 1R

지난해 뜻하지 않은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던 나상욱(23·코오롱)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나상욱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클래식클럽골프장(파 72·7천305야드)에서 치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봄호프크라이슬러클래식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쳐 선전했다.

9언더파 63타를 몰아쳐 선두로 나선 로버트 앨런비(호주)에 5타 뒤져 공동 19위가 된 나상욱은 대회가 5라운드 90홀로 치러지는 데다 4위 그룹에 2타차에 불과해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부풀렸다.

나상욱은 72.2%의 그린 적중률이 말해주듯 아이언샷 컨디션도 좋았고 퍼팅 역시 홀당 1.538개에 그쳐 경기 내용이 빼어났다.

다만 두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5번홀(파4)과 10번홀(파4)에서 파세이프에 실패한 것이 아쉬웠다.

집 앞에 있어 안방이나 다름없는 벼루다운스골프장(파72·7천17야드)에서 1라운드에 나선 재미교포 신인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이븐파 72타로 공동 95위에 그쳤다.

버디 3개를 보기 3개와 맞바꾼 앤서니 김은 아이언샷이 자주 그린을 빗나간 데다 정규타수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놓았을 때 퍼트 개수가 1.833개까지 치솟는 등 긴장감을 털어내지 못했다.

한편 이 대회는 4개 코스에서 4라운드를 치른 뒤 상위 70명만 골라내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생존경쟁은 시작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프로야구 KIA가 19일 1차 투수·포수조를 시작으로, 25일엔 2차 야수조가 일본 미야자키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참가자는 코칭스태프 10명과 선수 31명 등 총 41명.

1차 투수·포수조는 김봉근 투수코치를 비롯해 코칭스태프 4명과 이동현, 임준혁 등 투수 10명, 김상훈, 차일목 등 포수 4명 등 모두 18명이다.

25일에는 서정환 감독과 외국인 투수 에터튼, 야수 이종범, 김중국 등을 포함해 총 23명이 출발한다.

선수단은 미야자키현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3일 훈련-1일 휴식' 일정으로 2007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탐금길에 들어간다.

현지에서 두산 및 일본 프로야구팀, 사회인 야구팀 등과 수차례 연습 경기도 치를 계획이다.

현재 팔에서 훈련 중인 투수 이대진, 한기주 등 11명은 25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합류한다.

KIA 선수단은 오는 2월 28일 휴가시에서 미야자키시로 이동한 뒤 3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대진, 한기주 등 11명은 25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합류한다.

서정환 KIA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최종 선발 라인업을 짜게 되는 만큼 실전 위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름값이나 몸값을 배제하고, 실력오로지 선수들을 평가 하겠다"고 밝혔다.

2007 전지훈련 참가자 명단.

▲코칭스태프(10명)

서정환, 박승호, 김중운, 이건열, 백인호, 김태용, 김봉근, 김중수, 김지훈, 야마시타.

▲투수(11명)

### 오늘부터 일본 전훈

### 49일간...41명 참가

이동현, 임준혁, 문현정, 전병두, 손영민, 진민호, 김희철, 고우석, 오준형, 양현중, 에터튼.

▲포수(4명)

김상훈, 차일목, 송산, 권운민.

▲내야수(9명)

김중국, 이재주, 한규식, 장성호, 홍세완, 손지환, 이현근, 김주형, 김연훈.

▲외야수(7명)

이종범, 심재학, 조경환, 김원섭, 이용규, 이호신, 서튼.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농협 "현대 유니콘스 인수 보류"

### 각계 반대 여론 의식한 듯

농협이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 인수를 보류하기로 했다.

농협 중앙회는 18일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 인수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내부방침을 정할 때까지 인수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의 현대 구단 인수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농협은 최근 현대 구단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

며 출구장 후보로 거론된 목동구장을 실시하는가 하면 '농협사랑 야구단'이라는 구단 명칭(가칭)도 발표하는 등 프로야구단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농협측은 이날 현대 구단 인수를 보류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농협 노조와 농민 단체 등 각계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농협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한해 200억 이상 드는 야구단을 운영하려고 한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최근 농림부에서 "농협이 야구단 인수를 추진하면서 농업인 의견 수렴은 물론 주무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부는 또 "필요하다면 농협 임원진의 업무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만약 농협이 현대 프로야구단 인수를 포기할 경우 2007년 프로야구는 최악의 경우 7개 구단으로 치러질 우려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현대건설 3연패 탈출

### 여자프로배구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 그린폭스가 KT & G를 제물로 3연패 사슬을 끊었다.

현대건설은 18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2라운드 여자부 경기에서 정대영과 한유미, 용병산야 토마세비치의 활약을 앞세워 KT&G를 3-1(25-18 25-20 22-25 25-19)로 제압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흥국생명예 1-3으로 역전패한 뒤 계속된 3연패에서 벗어나 3승5패로 새 체미를 갖췄다. KT&G는 4연패 끝에 2승6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트스코어 2-1로 앞선 현대건설은 4세트에 정대영과 한유미가 초반부터 2점 짜리 후위공격을 한개씩 터뜨려 10-6으로 앞섰지만 중반에 김세영의 한뼘 높은 스파이크를 막지 못해 17-17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센터 김수지의 속공을 신호탄으로 산야의 스파이크가 폭발하면서 연속 5점을 뽑아 22-17로 멀찌감치 달아났고 24-19에서 한유미의 직선 강타가 승부를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승엽 내달부터 스프링캠프 참가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월1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시작되는 스프링캠프에서 어느 때보다 일찍 실전에 돌입한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는 18일 인터넷에서 하라 다쓰노리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전날 회의를 통해 스프링캠프 일정과 진행 계획 등을 확정하고 2월11일부터 청백전을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히치'는 요미우리가 예년보다 빨리 실전을 벌여 선수들의 실력을 철저히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1일부터 미야자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되는 캠프에서 이승엽은 볼과 열흘만 훈련한 뒤 곧바로 실전을 치르는 셈이다. 훈련 시작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9시30분으로 앞당겨진다.

2군 육성 선수를 포함, 보류 선수 7명이 있는 요미우리에서 2년 이상 팀에서 계속된 선수가 33명 밖에 없기에 실전을 통한 육성 가리기를 일찌감치 실시하겠다는 게 요미우리 수뇌부의 판단이다. 팀내 각 포지션별로 생존 경쟁이 일찌감치 펼쳐지지만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승엽이 지키고 있는 1루는 사실상 무용지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네티즌 농협야구단 풍자 이름짓기 이모작스·안티버멸구스·모내기스 등 다양

농협의 현대 야구단 인수가 논의가 진행 중인 최근 며칠동안 인터넷에선 야구단 인수를 풍자한 네티즌들의 새 구단 이름 짓기가 유행했다. 18일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농협 트랙터스', '농협 풍작스', '농협 품앗이 빌스', '농협 이모작스', '농협 천하대장

군스', '농협 비닐하우스', '농협 슈퍼 경운기스', '농협 안티버멸구스', '농협 비료푸대스', '농협 모내기스' 등 농협 업무를 풍자한 구단 명 뜻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새 야구단 이름을 빗대 농협의 정체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농협이 농민들의 이익은 외면하고 사업만 확장하고 있다며 '농협 피탈스'로 짓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한미 FTA서 농민들의 입장이나 잘 대변하라는 의미로 '농협 FTA'로 지어야 한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